

## 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

얼마 전부터 소위 ‘21 세기 아소까 선언’ 을 둘러싼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격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직 불교가 생동하고 있고, 불교도들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구를 위한 선언일까?” “누구에게 하는 선언일까?” 필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선언은 ‘열린진리’ ‘열린종교’ 를 강조하고 있다. “내종교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동반자이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는가. 아니, 우리 불교가 언제 남의 종교를 부정하고, 불교만이 길ियो 진리요 구원이라고 주장해 왔던가? 언제 우리 불교도가 교회를 부정하고 성당을 훼손하는 침략적 행위를 자행해 왔던가?

지금 우리 불교는 기진맥진해 있다. 종단 내부의 탐욕스런 권력구조와 이교도들의 전면적인 도전 앞에서 힘을 잃고 이류, 삼류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 스님들도 기력을 잃고 재가대중들도 도처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종교는 다 진리다” “싸우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고 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싸울 힘도 대항할 능력도 없는 초라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주장하니까, 힘이 빠지고 화가 나는 것이다.

‘아소까 선언’ 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많은 불교도들이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런 심리적 상황 때문일 것이다. ‘무장해제’ 라는 일부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언제 우리가 무장한 적이 있었던가?

이왕 이런 선언을 내려 한다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발의로 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선언했어야 할 것이다. ‘아소까 선언’ 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닐까?

선언에서는 아소까 대왕이 모든 종교를 옹호하고 평등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래서 ‘아소까 선언’ 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그것은 아소까 대왕이 불교의 담마로써 인도대륙을 정신적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위와 돌기둥에 새겨진 아소까 칙령은 ‘불교’ 라는 전제없이 보편적 의미의 담마(法, 善法)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담마는 실제로는 불교이다. 불교위 담마(佛法)이다. 여기에는 <숫따니파타> <앙굿따라니까야>등 초기경전들이 인용되고 있다.

아소까 대왕은 불교로 개종하고 열렬히 신봉하면서, 불교 담마를 인도대륙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수 많은 사리탑과 바위, 돌, 기둥을 세워 불교정신을

전파하고, 멀리 중동지역까지 전법사를 파송해 불교세계를 확장시켜 갔다. 그러면서 불교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종교평화를 실현해냈다. 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역사적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불교가 힘을 갖고 있어야 이 땅의 평화는 비로서 가능하다.

‘아소카 선언’을 아무리 외쳐 봐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저들이 경청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아소카 선언’이 진실로 평화선언이 되려면, 먼저 우리 불교계의 힘부터 길러야 한다.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현장에서, 힘없는 자들이 ‘우리 평화합시다’ 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백기(白旗)를 드는 것과 다름 없지 않은가?

자유로운 경쟁, 선의(善意)를 다하는 치열한 경쟁, 이 경쟁을 통하여 힘을 기르고 세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평화 이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중들이여, 전법하러 떠나거라”고 분부하시고, 팔순 노령으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피땀 흘리며 변방으로 나아가 법을 전파 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만해스님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승리한다” 이렇게 절규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밤을 지새며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김재영(청보리회 법사)

(김재영 청보리회법사, 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 현대불교신문 2011-11-30 일자 pdf 에서)